

기억의 재구성 과정 후체험 세대의 4·3*

권 귀 숙 **

이 연구는 4·3을 직접 겪지 않은 제주주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나아가서 기억 재구성 과정과 사회집단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는 후체험 세대이며, 세대별로 나누어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총 응답자는 340명이며 중장년층은 114명이고, 젊은 세대는 226명이다. 내용분석 결과, 후체험 세대들은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로(‘의견형’), 가해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경험으로(‘가해·피해형’: ‘가해론’ ‘희생론’), 사건의 발발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원인·결과형’: ‘원인분석형’ ‘과정분석형’) 과거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 유형은 세대와 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층과 여성은 가해·피해형으로, 젊은 세대와 남성은 원인·결과형으로 4·3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와 초기성인기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경험, 성별에 따른 사회화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억의 사회성에 대한 기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주제어: 제주 4·3사건, 집합기억, 기억유형, 세대, 성

I. 문제 제기

이 글은 4·3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제주주민들이 4·3을 어떻게 기억해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기억 내용보다는 재구성 과정, 즉 기억해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의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경험담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또는 사건의 원인과 결

* 이 글의 초고는 2003년 4월, 제주 4·3 제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때 발표되었다.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석준, 김종민, 김창후, 신행철, 정근식, 조성운 선생님과 익명의 한국사회학회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조사에 협조를 해주신 문순덕, 문혜경, 이상철 선생님을 비롯하여 조사면접원과 응답자에게도 감사드린다.

** 제주 4·3 연구소 전임연구원.

과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 일종의 서사 스타일을 이해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 목적은 4·3 후체험 세대에 관한 관심과 기억의 사회성에 대한 이론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4·3은 체험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쳐온 역사적 사건이다. 최근 2003년 10월 15일 확정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4·3은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학살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그러나 사건 이후 40여 년 동안은 ‘공산당 폭동론’이 공식역사였고, 이 공식역사와 다른 기억의 공개는 금지되어왔다. 나아가서 체험자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마저도 1980년대 중반까지 연좌제 등 국가에 의한 처벌을 받아왔다. 따라서 후체험 세대, 특히 현재의 중장년층은 4·3의 후유증을 겪어왔고, 4·3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진상규명운동의 과정에도 후체험 세대가 주역을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체험 세대의 기억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이미 체험자들의 기억은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공개되어왔다(예,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1998; 제주 MBC TV, 1999-2001).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아온 사건이므로 체험자의 증언이 진상규명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체험자 외의 제주주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4·3은 오늘날까지 제주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고, 이미 체험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제주주민이 이 문제에 당면해 있다. 그러므로 후체험 세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4·3의 현재를 이제 이해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의 이론적 관심은 이니구에즈 등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Iniguez, Valencia & Vazquez, 1997).¹⁾ 기존 연구들은 체험자에 주로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기억의 사회성을 주장한 알박스(Halbwachs, 1980)의 가설을 주로 사회집단간의 기억 내용의 차이로써 검토해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세대, 성, 계층 등의 사회집단에 따라 기억이 어떻게 서로 다르며, 같은 사건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다루어왔다(Schuman & Scott, 1989; Fentress & Wickham, 1992). 기타 공개적 토론이 억압당했는지 등 사회적 맥락에 따라 체험자의 기억이 어떻게 재형성되어왔는지를 연구해왔다(Marques, Paez & Serra, 1997; Paez, Basabe &

1) 이니구에즈 등의 연구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Gonzalez, 1997). 이니구에즈 등은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후체험 세대와 기억 재구성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인 스페인 대학생들은 역사가의 접근 방법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역사적 사건이었던 스페인 내전을 정의하고 있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개념, 담론, 용어 등에서 대학생들의 응답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니구에즈 등은 집단간의 이러한 서사 스타일의 차이를 기억의 사회성에서 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4·3 후체험 세대의 기억 재구성 과정의 분석과 더불어 알박스나 이니구에즈 등의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기억의 내용과 재구성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내용뿐만 아니라 기억유형도 사회적 맥락, 사회 집단의 성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체험 세대, 특히 현재의 중장년층이 겪어왔던 사회적 맥락과— 토론 금지, 연좌제 등 제도적 억압— 제주도라는 문화적 환경 등이 4·3의 기억 재구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토론이 가능해진 사회적 상황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주도 내의 어떠한 사회집단이 기억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사회집단에 따른 기억유형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이다.

기억은 고정된 역사적 순간에 대한 재발견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통해 선택되고, 재해석되고, 왜곡된 결과이다(Popular Memory Group, 1982; Burke, 1989). 역사가 서구식 시간 관념, 과학적 방법 등에 기초한 과거의 정리 방식이라면 기억은 보통사람이 ‘기억할 만한’ 과거만을 그들의 회고 방식에 의하여 형성시켜온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접근 방식으로 선택되지 않았던 사회 내의 다양한 기억들도 과거를 보다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3 후체험 세대의 기억 재구성 과정에 대한 분석도 4·3이 오늘날까지 전달되고 유통되어온 또 다른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기존 연구

이 글에서는 기존의 정의대로 역사를 역사가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과거라고 정의하고, 기억은 현재와의 관련

하에 과거에 대한 다양한 재인식 과정으로 정의한다(Popular Memory Group, 1982; Connerton, 1989). 역사는 서구 학문의 하나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가치중립적이고, 기억은 과거에 대한 주관적 의미, 감정, 느낌까지 포함된다. 역사는 과거의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만, 기억은 사건 이후 반복되는 회고 과정이나 사회적인 통화 과정에 의하여 시점이 유동된다. 또한 역사는 연대순으로 정리되면서 그 원인, 과정, 결과의 체계적 분석이 강조되지만, 기억은 특정 경험, 이미지 등도 부각될 수 있고 사회집단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Halbwachs, 1980; Burke, 1989; Alonso, 1998).

기억의 사회성은 알박스의 이론에서 거론되었다(Halbwachs, 1980). 알박스에 의하면 사회집단에 따라 기억이 다르다고 한다. 국가 등 사회집단은 과거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세계관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집단 성원간의 교류를 통해 세상에 대한 관점, 시각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기억까지 공유해간다. 과거를 회고하는 인식 과정까지 영향을 주므로 개인의 기억도 사회적인 것이다(Fentress & Wickham, 1992). 즉 사회집단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따른 관념이 다르고 문화적 틀도 다르므로 집단의 성향이 기억의 형성, 보존, 회고 등의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박스의 이러한 이론은 기억의 사회성에 대한 여러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어떠한 사회집단에 따라 기억이 서로 달라지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일생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기억 형성 시기는 언제인가? 사회적으로 기억을 억압하는 맥락에서 기억은 또한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먼저 ‘중요시기 가설’은 후기청년기와 초기성인기 때 형성된 기억이 일생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Schuman & Scott, 1989; Pennebaker & Banasik, 1997).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 가설을 거의 지지하고 있다. 문화권에 따라 초기성인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25세 때 형성된 기억은 가장 오래 지속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섬광기억(flashbulb memory)이 주로 이 시기에 형성된다.²⁾ 나아가서 이 중요시기 동안 서로 공유했던 사회적, 역사적 경험은 세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일단 한 세대의 정체성이 형성되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Conway, 1997).

이 가설은 세대간 기억 차이에 대한 연구 등에서 재검증되고 있다. 예를

2) 섬광기억이란 브라운과 쿨릭(Brown & Kulik, 1977)이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써 마치 사진처럼 자세하게 인식되어 오랜 기간 동안 고도로 생생하게 지속되는 기억을 의미한다 (Conway, 1997).

들면 슈만 등(Schman, Belli & Bischooping, 1997)은 세대가 사회집단 중(세대, 교육, 성, 인종 등)에서 역사적 사실(호로코우스트, 워트게이트, 독일 통일 등)을 다르게 회고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 슈만 등은 성인으로서 주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함께 겪게 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결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세대간에 비교적 유사한 기억의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초기성인기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의견이나 태도가 발달되어간다고 한다(Baumeister & Hastings, 1997).

또 다른 쟁점은 세대 외에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집단의 확인인데, 기존 연구는 성(gender)이나 계급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여성과 남성은 사회화의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선택하는 기억이 다르다. 남성들이 특정 부분에 대한 기억이나 공적 영역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는 반면 여성들은 가족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Ely & McCabe, 1996; Leydesdorff, Passerini & Thompson, 1996). 이 가설도 기존 연구에 의하여 거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에 대한 기억 연구에서 남성들은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여성들은 전쟁의 주변부나 일상생활에서의 과거를 더 많이 회고하고 있다(Fentress & Wickham, 1992: 140-141). 4·3의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가족이나 사건 이후의 고통을 더 말하고 있다(권귀숙, 2001).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충남 한 마을의 할머니들도 사회전반적인 관심보다 ‘가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 경험을 더 많이 회고했다(윤택림, 2001). 그러나 젊은층으로 오면서 여성과 남성의 기억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Leydesdorff et al., 1996). 급격한 문화적 변화에 따라 성에 따른 일상생활의 차이가 줄어들어으로써 성별에 따른 기억의 분산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 사회적 계급도 중요한 변수로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농민들은 지역 현실과 부합되는 지배층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며, 노동자 계급은 영웅적인 스트라이크 투쟁 등 정치적인 측면의 기억들을 공동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Fentress & Wickham, 1992). 또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의 사직에 관한 집단간의 비교 연구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상류층이 가장 강렬하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Gaskell & Wright, 1997). 4·3 연구에서도 사건 당시의 신분에 따라 50여 년 전의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권귀숙, 2001). 사회에서의 현재와 과거의 위치가 기억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으로 기억의 공개 가능성 등 사회적 맥락과 기억의 재형성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체주의 사회 등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사건 전체에 대한 기억보다 사적인 기억들이 더욱 발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osking, 1989; Marques et al., 1997). 특히 대량학살 등 감정적인 사건일수록 체험자들은 오래 되새기고 나누는 경향이 강하다(Paez et al., 1997). 그런데 사회의 역할이 공백이므로 대신 개인적, 집단적 수준의 사적 기억을 강화하게 된다. 침묵을 강요할수록 기억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위치가 전환되어진다. 즉 공적 기억 대신 사적 기억으로 과거를 재배치시키게 된다.

이러한 쟁점과 가설들은 주로 체험자의 기억과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지만, 후체험 세대의 기억이나 재구성 과정에 적용한 연구들도 있다. 역사가의 접근방식과 보통사람의 회고 과정이 다르고, 이 과정에 의해 드러난 과거는 전통적인 역사 교과서와 다르다. 유교 문화권에서 기억을 자발적으로 억압해왔던 조선인 군위안부들은 그들 나름으로 기억을 복원하고 있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2001). 그들은 역사가의 관심처럼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을 구술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연상작용에 의하여 과거를 되살리고 있었다. 즉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억 지도”(2001: 20)에 의하여 기억을 형성하고 보존해왔다.

또한 앞서 소개한 이니구에즈 등(Iniguze et al., 1997)은 후체험 세대가 과거를 다양하게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은 스페인 내전에 대하여 여섯 종류의 서사 스타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스페인 내전을 사건 순서대로 설명하거나(연대형, *chroniclers*), 날짜 등 정확한 자료에 의해 정부의 인수 과정을 설명하거나(객관형, *objectivists*), 이념에 의한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하거나(적대형, *antagonists*), 갈등의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감정형, *deideologizers*), 두 집단의 대립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거나(대립형, *polarizers*), 사료를 연대순으로 보여주는(사료제시형, *philohistorians*) 등으로 같은 사건을 다르게 역사화하고 있었다. 이니구에즈 등은 이러한 회고 방식의 차이가 알박스가 주장하는 집단간 기억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러한 기억 이론이나 가설들은 사회집단간 서로 다른 기억을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 기억 내용이나 회고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후기청년기와 초기성인기의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환경이 기억 차이에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말해준다. 특히 기억을 억압하는 사회인가 여부도 기억의 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조사 방법은 설문지조사 방법으로서, 보다 많은 후체험 세대의 기억 담론을 보기 위해 선택했다. 연구대상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 태어난 제주 출신으로서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그리고 표본 선정은 연구대상자들을 다시 세대별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세대별로 표집한 것은 이론적 이유와 연구대상자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나이 또는 세대는 집합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청년기와 초기성인기의 경험이 기억 형성과 보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의 사회적 공개여부도 기억 재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자인 후체험 세대의 경우, 초기성인기 동안 4·3 기억이 철저히 억압당해왔던 세대와 토론이 자유스러운 세대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러한 연구대상자의 성격과 중요시기 가설 등의 이론적 쟁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사건 2세대와 3세대로 구분해본 것이다. 여기서 사건 2세대와 3세대라는 명칭은 연구자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붙여진 것이다. 체험자 세대를 사건 1세대라고 한다면, 사건 2세대는 체험자 세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나이집단을, 사건 3세대는 손자녀가 될 수 있는 나이집단을 말한다. 인구학적인 정확한 세대 구분보다 그들의 청년기와 초기성인기에 4·3사건의 공개 토론이 가능한 시기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했다. 즉 4·3사건 2세대란 4·3사건에 대한 공개 토론이 금지되었던 시절에 그들의 청년기와 초기성인기를 보낸 세대를 말한다. 반면 사건 3세대란 청년기와 초기성인기를 공공기관, 매스미디어 등에서 사건이 자유스럽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 세대를 지칭한다. 이 기준에 의해 사건 2세대를 1949년 출생 이후 1967년 출생한 주민까지, 그리고 사건 3세대를 1974년 출생 이후 1984년 출생한 주민까지로 규정했다. 조사시점인 2001년 5-7월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나이집단이 각각 35-52세, 18-27세에 이른다.³⁾

이에 따라 4·3사건 2세대의 표본 선정은 이 나이집단에 해당되는 제주주민을 제주도 전 지역에서 조사자가 편의방법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법으로 조사했다. 3세대는 제주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했다.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교양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

3) 여기에서 28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층이 누락되는데, 이는 이 연령층을 사건 2세대 또는 3세대로 규정하기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연령층의 기억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시기는 2001년 5-7월이며, 총 응답자 수는 340명이고, 그 중 2세대는 114명이며 대학생은 226명이었다.

설문 문항으로는 나이 외에 성, 직업(2세대), 교육(2세대), 출신마을(2, 3세대), 전공(3세대), 4·3 관련 대화, 4·3 관심도, 가족 중 희생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⁴⁾ 성은 성에 따라 기억이 다를 것을 보여준 기존 연구에 따라 선택한 것이며, 직업 및 교육은 연구자의 한계로 제외한 계급 측정 대신 포함한 것이다. 기타 전공, 4·3 통화, 4·3 관심도, 출신마을, 가족 중 희생 여부 등은 4·3에의 관심 수준이나 기억 전달과 관련된 변수이므로 회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택했다.

조사대상자의 기억 재구성 과정에 관한 설문은 이니구에즈 등이 던진 같은 방식의 질문을 그대로 활용했다. 즉 “제주 4·3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4·3사건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라는 개방식 질문을 사용했다.

이 연구 방법은 조사자의 편의에 의하여 표본이 선정되었으므로 응답자가 연구대상자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해주는 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3세대는 대학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대학생이 아닌 3세대의 기억 담론을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그렇지만 표본 수가 적지 않고, 2세대 경우는 성, 교육, 직업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성, 전공 등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조사 결과가 본 연구의 목적에 문제가 될 정도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⁵⁾

4) 여기에서 2세대의 직업은 응답자 스스로가 말한 직업(예, 농업, 사업, 회사원 등)으로서 직업분류 기준에 맞춘 것은 아니다. 4·3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2, 3세대 모두에게 “4·3 관련 텔레비전 뉴스나 특별 프로그램이 나오면 보십니까”라는 질문과 “꼭 본다,” “거의 본다,” “대충 본다,” “거의 안본다,” “안본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한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 외에 신문기사 보기, 위령제 참가, 유적지 방문, 문헌 읽기 등도 같은 방식의 질문과 응답으로 4·3 관심도 측정에 포함시켰다. 4·3 관련 대화(빈도수)는 2세대에게 이웃, 친구, 선생님 등으로부터 4·3에 관하여 “얼마나 자주 그런 말씀을 들습니까”라는 질문과 “일년에 한번,” “일년에 서너번,”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거의 매일,” “기타”라는 응답으로 측정했다. 3세대에게도 “응답자는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4·3을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라는 개방식 질문으로 이를 측정했다. 출신마을이란 사건 발생 당시 부모(2세대)나 조부모(3세대)가 살았던 마을을 말하며, 초토화 작전의 피해 지역이었던 ‘중산간 마을’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해안 마을’로 구분했다. 기타 대학생의 전공은 인문학, 사회과학(사회학, 법학, 경제학, 행정학 등), 자연과학(농학, 해양학, 의학, 물리학 등), 기타(교육학, 예술, 가정학, 체육 등)로 분류했다.

5) 2세대의 경우, 남성이 53명, 여성이 61명이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19.3%, 고졸이 44.7%, 대학 이상이 36.0%로 분포되어 있다. 직업은 농업(12.3%), 사업(26.3%), 기술직(3.5%), 공무원(18.4%), 교직(2.6%), 회사원(14.0%), 주부(15.8%), 기타(7.0%)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대학생의 경우, 남성이 90명, 여성이 136명으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약간 높다. 전공은

III. 후체험 세대의 기억유형

역사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은 4·3을 어떻게 기억해내고 있을까? 50여 년 동안 이 사건이 주민들간에 회자되어오고, 의례 등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오면서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제주주민들도 나름대로 4·3을 정의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오늘날 제주도라는 문화권에서 풀어내는 회고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앞 장, 연구 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 4·3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설문지 질문에 후체험 세대는 다양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다양한 회고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니구에즈 등의 연구 대상이었던 스페인 학생들의 경우와는 전반적으로 다른 기억 틀을 갖고 있었다. 후체험 세대의 기억 지도는 이니구에즈 등이 분류한 유형으로 읽혀지지 않았다. 후체험 세대는 그들 나름으로 4·3을 기억해내는 여러 인식 회로를 갖고 있었다. 스페인과 제주라는 문화적 공간과 시간 개념의 차이, 정치환경의 차이 등이 기억 재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후체험 세대의 기억 재구성 과정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졌다. 먼저 ‘원인·결과형’ 또는 ‘설명형’이다. 이 유형의 집단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라는 인식 축으로 4·3을 정의하고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사건이 봉기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는 집단이다.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역사가의 접근 방식과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인·결과형은 ‘원인분석형’과 ‘과정분석형’으로 다시 분류된다. 원인분석형은 ‘왜’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유형이며, 과정분석형은 ‘어떻게’ 사건이 봉기하게 되었는지 사건의 진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다음으로 ‘가해·피해형’은 구체적인 가해와 피해 사실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4·3을 정의하고 있는 유형이다. 즉 ‘누가’ 가해자이며, 어떤 가해 또는 피해가 있었는지 등 응답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경험담으로 4·3을 이해하는 집단이다. 원인·결과형처럼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고 있는 스타일이다. 여기에서도 ‘가해론’과 ‘희생론’으로 나누어지는데, 가해론은 가해자 또는 가해 과정을 중심으로, 희생론은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4·3을

인문학이 22.1%, 사회과학이 23.5%, 자연과학이 31.4%, 기타가 18.6%로(무응답, 4.4%) 분포되어 있다. 출신마을의 분포를 보면, 2세대의 경우, 중산간 마을이 43명(37.7%), 해안 마을이 53명(46.5%)이며 불분명 사례가 18명(15.8%)이었다. 대학생의 경우는 중산간 마을이 67명(29.6%), 해안 마을이 67명(29.6%)으로 같고, 모르거나 무응답이 91명(40.3%)이었다

기술하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의견형’은 위의 두 유형과 달리 사건의 밖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평가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건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기술이 아니라 4·3이라는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집단이다. 각 응답집단의 보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⁶⁾

(1) 원인·결과형

a. 원인분석형

원인·결과형 중 사건의 원인 분석으로 4·3을 기억해내는 집단이다. 원인의 내용은 다르지만, ‘왜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4·3을 정의하는 것은 같다. 예를 들면 “몇몇 의식화된 세력과 여기에 협조 및 동조한 지역주민들의 폭동에 의한 무차별 양민학살과 식량착취, 가옥방화 등... 폭동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및 군인들이 무고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정부의 무력함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하여 죄없는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48년 당시 불온세력의 도내 침투로 인해 정부의 강압적인 소탕작전으로 도민들은 경찰과 폭도들 사이에 시달리고 희생되었으며...,”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부, 군, 경찰과 폭도들간의 대립에서 선량하게 사는 도민들이 희생되었다” 등이 그것이다. 주로 “정치적 상황,” “강압적 소탕작전,” “빨갱이 색출,” “이념 대립,” “고립 지역” 등의 다소 추상적 개념과 더불어 “...로 인하여,” “... 때문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b. 과정분석형

사건의 원인을 주요 사건의 진행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형이다. 원인 분석형과의 차이는 사건의 연대 등 진행 순서를 보여주므로 시간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원인분석형은 특정한 원인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과정분석형은 해방 직후 상황,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포, 총파업 사건, 4·3 봉기, 5·10 단선 거부, 정부의 과잉진압 등 4·3이 발발하게 된 경위 또는 대량학살의 경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4·3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은 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였다. 이 행사는 관덕정에서 일어났고... 이 일로 3월 10일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미군정의 횡포

6) 여기에서 응답이 두 유형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원인을 강조한 이후, 진상규명 요구 등의 의견이 첨가된 경우, ‘원인분석형’으로 분류했다.

가 심하게 되었고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은 5·10 단선을 거부하고 무장하여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대항했다... 피해상 황과 4·3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등 날짜, 장소, 특정 사건 등을 시기별로 지적하면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2) 가해·피해형

a. 가해론

가해·피해형의 특징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인데, 가해론은 가해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괴롭혔고, 주민들은 어떻게 도망가고 숨었는지 등 사실이나 경험을 말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군인이나 경찰에 의하여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제주도민들은 이유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다,” “폭도들 때문에(때문에) 경해수다(그렇게 되었습니다)...,” “폭도들은 야밤에 내려와서 주민들 집에 들어가서 식량들을 마구 가져가고...,” “자식들을 데리고 바다 곁에 사는 사람은 바다 밑으로 가서 숨기도 했다고 한다,” “도두 국민학교 큰 밭에서 한 100여 명을 죽였다” 등이다.

b. 희생론

가해·피해형 중 희생론 집단은 피해의 결과로 4·3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건 원인이나 가해 부분 등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이 제주도민의 억울한 희생이라는 피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집단이 응답자 중 가장 짧게 대답한 집단으로서 대부분 “잘 모르겠지만” 등으로 시작하여 ‘제주도민 희생’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억울함”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함께 쓰고 있다. 예를 들면, “4·3사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다만 아는 건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제주도민이 아무런 잘못없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뿐이다,” “그냥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건” 등이다.

(3) 의견형

의견형은 사건 자체에 대한 정의보다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로 4·3을 기억해내는 경우이다. 즉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진상규명’이나 ‘피해보상 요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를 들면, “하루 빨리 정확한 진상파악이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이 빨리 이루어지고, 피해보상도 따라야 한다,” “4·3이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

나지 않았으면 한다,” “4·3사건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4·3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확한 진상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하루 빨리 정확한 진상파악이 되어야 한다” 등이다. 또한 사건에 대한 평가의 예로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비극,” “한 민족의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건,” “정당한 항쟁” 등이다.

후체험 세대는 50여 년 전 그들의 고향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이처럼 원인·결과의 축, 가해·피해의 축, 그리고 의견의 축으로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서사들은 공식역사나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 4·3 시각들, 사건의 사회적 유통 과정 등을 더 반영하고 있다. 기억이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환경 등에서 선택되고 변화된다는 기존 이론이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우선 스페인 학생들의 기억유형에서 볼 수 없었던 ‘의견형’이라는 유형은 1980년 후반 민주화 이후 오늘날까지 위령제, 4·3 유적지 순례, 언론 등에서 되풀이되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종 행사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구호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었고, 문학, 미술, 다큐멘터리 등의 예술작품도 진상규명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왔다(김종민, 1999; 김영범, 2003). 또한 가해론처럼 가해자의 정체나 가해과정의 경험담으로 4·3을 인식하는 방식도 토론을 억압해오는 동안 사적으로 발달된 체험자들의 구술과 이로 인한 주민들간의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제주도문제연구소, 1989). 희생론도 가해론과 마찬가지로 체험자의 직접적인 구술이나 간접적인 느낌, 각종 증언(예, 제주 4·3연구소 편, 1989;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1998)과 언론 보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물론 원인·결과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은 역사 교육 등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원인이나 사건 봉기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4·3 담론 논쟁과 연관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제주 문화권에서 서로 다르게 기억해내는 그 차이는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다음 장에서 응답자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서 이 의문을 더 다루어보고자 한다.

Ⅳ. 기억 재구성 과정과 사회집단

후체험 세대가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은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다섯 집단으로 분류된다. 왜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

고 서로 다르게 과거를 기억해내고 있는 것일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세대 또는 나이, 성별, 계급,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해 서로 강조하는 기억이 다르고, 특정 사건을 보다 더 자세하게 기억한다고 한다. 기억의 재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이 과정도 기억 내용처럼 사회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또한 체험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쳤던 나이, 세대, 성 등의 변수가 후체험자의 회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응답의 여러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 작업일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총 응답자 수는 213명이며 그 중 중장년층(4·3사건 2세대)은 92명, 대학생(4·3사건 3세대)이 121명이다. 설문지 응답자 중(총 340명, 2세대 114명, 3세대 226명) 무응답과 ‘모른다’는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그 이후의 결과이다.

<표 1>의 요약처럼 응답자들은 원인·결과의 축으로 4·3을 기억해내는 비율이 39.5%로 가장 높다. 이 중 과정분석형은 8.0%에 불과하고, 원인분석형 비율이 31.5%로 세분된 응답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해·피해형의 축으로 4·3을 회고하는 비율도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해론이 전체의 18.3%, 희생론이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의견형은 전체의 27.7%로 앞의 두 기억방식에 비해 낮으나, 응답집단으로는 원인분석형 다음으로 높다.

2세대 또는 중장년층만 보면, 가해·피해형이 44.5%로 가장 높다. 그 중 가해론이 29.3%로 응답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고, 희생론은 15.2%이다. 그 다음으로 원인·결과형은 30.4%인데, 이 중 원인분석형이 26.1%로 대부분이며, 과정분석형은 4.3%로 매우 낮다. 의견형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세대 또는 대학생의 경우, 원인·결과형이 46.2%로 단연 높다. 그 중 원인분석형이 35.5%로 대부분이나, 중장년층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던 과정분석형도 10.7%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피해형은 23.9%이며 이 중 가해론이 9.9%, 희생론이 14.0%를 차지하고 있다.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가해론이 대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견형은 29.8%로 가해·피해형보다도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세대 변화

<표 1>에서 요약된 응답집단과 세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사건이 2세대, 특히 3세대로 오면서 4·3에 대한 망각이 오히려 심해졌음을

〈 표 1 〉 후체험 세대의 기억유형 분포

기억유형		세대				합계	
		2세대		3세대			
원인·결과형	원인분석형	24	26.1	43	35.5	67	31.5
	과정분석형	4	4.3	13	10.7	17	8.0
	합계	28	30.4	56	46.2	84	39.5
가해·피해형	가해론	27	29.3	12	9.9	39	18.3
	희생론	14	15.2	17	14.0	31	14.6
	합계	41	44.5	29	23.9	70	32.9
의견형	의견형	23	25.0	36	29.8	59	27.7
총합계		92(명)	99.9(%)	121(명)	99.9(%)	213(명)	100.1(%)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망각을 강요받았던 적이 있는 2세대보다 3세대가 오히려 4·3을 망각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중장년층인 2세대의 경우는 응답자 114명 중 22명이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3세대인 대학생의 경우는 응답자 226명 중 무려 105명의 학생들이 “모르겠다”(42명)고 답하거나 전혀 답하지 않았다(63명). 답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다른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로 추측해볼 때, 역시 거의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공백으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대학생이 4·3의 기억을 재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2세대의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토론이 금지되어왔기 때문에 일부 응답자가 모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⁷⁾ 대학생들은 거의 매일 4·3 소식이 전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의외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과의 개별적인 면담에서도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소수의 학생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등 앞으로는 관심을 갖겠다고 응답했지만, 제주대학교의 게시판에 해마다 게재되는 각종 4·3 기념사업 공고(기념식, 연극제, 미술전 등), 또는 TV, 지역 신문 등에 중요한 뉴스로 자주 부각되는 4·3 관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젊은 세대에게 이 사건은 의미 있는 과거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즉 대학생 집단에게 있어서 4·3은 기억할 만한 사건이거나 중요한 역사로 선택되지 않고 있다.

7)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2세대 주민들 중 대부분은(22명 중 17명)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죽었다”거나 “충살을 시켰다”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따라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대학생들과 달리 4·3에 대하여 거의 무지하기보다는 약간의 단편적 사실밖에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4·3을 설명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니구에즈 등이 연구한 스페인 대학생의 응답과 제주도 대학생의 경우를 비교해볼 때도 스페인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보다 날짜, 사료 제시, 대립 집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했다. 제주도 대학생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응답을 한 경우에도 사건 자체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는 응답이 거의 1/3이나 되었다(29.8%). 현재 대부분 70대 이상인 4·3 체험자들이 매우 자세하게 4·3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대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특히 4·3 토론이 억압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더 전달되지 않았다.⁸⁾

현재 제주도의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4·3을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이 사건을 망각하고 싶은 것일까? 세대간 기억 형성에 관한 슈만과 스코트(Schuman & Scott, 1989)에 의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초기성인기의 정치적 환경과 문화적 경험 등이 연관된다고 한다. 또한 집단의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형성에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Igartua & Paez, 1997).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문화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경험들과— 인터넷, 대중문화, 교육, 하위문화 등— 사회역사적 맥락, 그리고 일상의 삶이 무관심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무관심하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서는 많은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이미 4·3이 회자되지 않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점이다. 중장년층은 체험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전해듣거나 한숨, 악몽 등 간접적으로도 느낌을 전달받아 왔지만, 젊은층은 이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또한 4·3이 관련된 연좌제나 보안법 등의 제도적 억압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겪어보지 않았다. 4·3으로 인한 생활고나 정신적 고통 등 후유증으로부터도 멀어졌다. 이는 가족 중 피해가 없거나 피해여부조차 모른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대부분이 4·3 관련 신문기사나 TV 프로그램을 “거의 안 본다”고 응답한 데서 확인된다.⁹⁾

더불어 현재 대학생들은 감귤산업, 관광산업 등 제주도의 경제 부흥에 따른

8) 이 글의 연구 범위는 아니지만, 다른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소수의 대학생(약 20-25%)들은 4·3 기념식에 참가하거나 유적지를 탐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중 소수는 열성적이나 다수가 4·3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 가족 중 희생자가 “없다”로 응답한 대학생(216명 중 64명)의 51.6%가 4·3 관련 신문 기사를 “거의 안 본다”(“안 본다” 항목 포함)로 응답했고, 희생여부조차 모르는 응답자(84명)의 59.5%가 “거의 안 본다”로 응답했다. 반면 가족 중 희생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68명)는 35.3%만이 “거의 안 본다”로 응답했다. 희생여부와 신문보기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10.54$, $df=4$, $p<.05$). 희생여부와 TV 프로그램 시청과의 패턴도 유사했다.

〈표 2〉 세대별 기억유형

기억유형	세대				합계	
	2세대		3세대			
원인·결과형	28	30.4	56	46.3	84	39.4
가해·피해형	41	44.6	29	24.0	70	32.9
의견형	23	25.0	36	29.8	59	27.7
합계	92(명)	100.0(%)	121(명)	100.1(%)	213(명)	100.0(%)

주: $\chi^2 = 10.50$, $df = 2$, $p < .01$

긍정적인 제주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어떤 집단이든지 때로는 집단기만을 통해서 긍정적 기억은 과장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망각하거나 왜곡시키려는 경향이 있다(Blaumeister & Hasting, 1997). 따라서 젊은 세대의 망각 현상은 제주인의 이미지 형성 변화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최병길·권귀숙·강상덕·김현돈·한석지·박찬식, 1998).

중장년층과 대학생의 이러한 망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장년층과 대학생의 기억유형의 분포가 서로 다르다. 이러한 분포는 세대가 기억의 재구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목할 만한 변수임을 시사해준다. 물론 여기서 세대는 그들의 청년기와 초기성인기 기간 중 기억의 공개여부로 구분한 것이지만, 연령도 중장년층과 젊은층으로 나누어진다.

세대와 기억 재구성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히 보기 위해 통계적 검증 방법을 이용해보고자 한다. 통계 검증상 필요한 칸(cell) 수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는 세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세대 차이가 기억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⁰⁾ <표 2>에 정리되어 있듯이, 중장년층은 대학생에 비하여 4·3을 가해·피해형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원인·결과형으로 기억하고 있다. 의견형 유형에서는 중장년층과 대학생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세대간 기억유형의 차이는 중요시기 가설과 기억의 억압 여부와 기억 재형성에 관한 가설을 모두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중장년층과 대학생들은 매우 상이한 청년기와 초기성인기를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 중이다. 제주사회의 급격한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로 인한 세대간의 차이 이외에도 4·3 관련 배경도 매우 다르다. 현재의 중장년층은 그들의

10) 중장년층(35-52세)만을 35-44세, 45-52세로 나이를 나누어 나이집단(대학생(18-27세), 35-44세, 45-52세)과 기억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봐도 나이가 여전히 기억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chi^2=15.84$, $df=4$, $p < .05$).

〈표 3〉 성별 기억유형

기억유형	성별				합계	
	여성		남성			
원인·결과형	35	31.5	49	48.0	84	39.4
가해·피해형	44	39.6	26	25.5	70	32.9
의견형	32	28.8	27	26.5	59	27.7
합계	111(명)	99.9(%)	102(명)	100.0(%)	213(명)	100.0(%)

주: $\chi^2 = 7.02$, $df = 2$, $p < .05$

초기성인기 기간을 4·3 관련 토론이 금지되고, 연좌제 등의 제도적 억압이 작용할 때 보냈다. 섬광기억 등 일생동안 가장 영향력있는 기억이 형성되는 시기를 4·3의 침묵 속에 보낸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층은 부모 등 체험자들이 강화시킨 사적 기억들을 주로 들어왔고, 스스로도 공적 기억보다는 사적 기억을 보존하거나 더욱 발달시켜왔다. 그 결과 중장년층이 대학생에 비하여 가해·피해형의 유형으로 4·3을 가장 많이 정의하고 있는 반면 대학생들은 이 유형으로 가장 적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학생은 청년기와 초기성인기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4·3 진상규명운동이 활발할 때 보내고 있는 중이다. 매스미디어, 문헌, 예술, 각종 기념행사를 통하여 그들은 4·3의 배경부터 피해상황까지 밝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다. 단편적인 경험담이나 공포의 느낌으로 전해 받기보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전달받아 오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4·3을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또한 감정적 전달보다 각종 매체를 통한 객관적 전달이 더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중장년층에 비하여 사건의 봉기 과정을 연대별로 설명하는 경향도 강하다. 더불어 진상규명운동이 활발한 시기에 기억이 형성된 만큼 의견형으로 4·3을 회고하는 비율도 중장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성별 차이

기존 연구에서 세대 외에 기억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 하나는 성(gender)이다. 성역할 사회화 경험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주로 일상생활이나 사건의 주변부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해낸다고 한다. 대화 스타일도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Ely & McCabe, 1996).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경험담으로 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주주민의 4·3 기억도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일관성이 있을 것인가?

성별에 따른 기억유형의 결과(<표 3>)를 보면, 이 가설이 검증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원인·결과형으로 4·3을 정의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반면 여성들은 가해·피해형으로 4·3을 정의하는 비율이 남성들에 비하여 훨씬 높다. 의견형으로 4·3을 말하는 비율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다. 여성들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경험으로 사건을 기억하고, 남성들이 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기억해내고 있다.

그러나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성별은 여전히 기억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4-1>).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가해·피해형으로 기억해내는 비율이 두드러지고, 원인·결과형으로 기억해내는 비율이 매우 낮다. 중장년층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기억 차이가 여전히 검증되고 있다. 반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표 4-2>). 젊은층의 경우, 모두 원인·결과형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높고, 가해·피해형으로 정의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므로 성별에 의한 기억유형의 차이는 주로 중장년층에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¹¹⁾

이 결과는 기억의 전달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과 성별 경험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년층은 체험자의 구술에 의하여 직접 4·3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대학생들은 이와 달리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사건 개요나 진상 등을 들어왔다. 즉 대학생은 구술에 의한 다양한 경험담보다 진상이라는 공적 담론에 의해 4·3을 인식해왔다. 이러한 간접적 전수 경험은 대학생들의 기억 재구성 과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즉 성별에 따른 기억유형의 차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젊은 세대로 올수록 성별 경험의 차이가 줄면서 기억유형의 차이도 감소될 수 있다(Leydesdorff et al., 1996). 제주사회의 경우에도 현재 중장년층이 겪어온 성별 경험의 차이는 현저하다(예, 김혜숙, 1999;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 2000;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2). 가족, 교육,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영역이 상당부분 분리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거의 배제되어왔다. 반면 현재 대학생들은 성별 분업의

11)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이 아니라 교육수준이 인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변수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장년층 여성의 교육수준이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낮은 층이 가해·피해형으로 사건을 기억해낸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교육수준과 기억유형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부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이 기억해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표 4-1〉 2세대의 성별 기억유형

기억유형	성별				합계	
	여성		남성			
원인·결과형	8	17.8	20	42.6	28	30.4
가해·피해형	25	55.6	16	34.0	41	44.6
의견형	12	26.7	11	23.4	23	25.0
합계	45(명)	100.1(%)	47(명)	100.0(%)	92(명)	100.0(%)

주: $\chi^2 = 7.12$, $df = 2$, $p < .05$

〈표 4-2〉 3세대의 성별 기억유형

기억유형	성별				합계	
	여성		남성			
원인·결과형	27	40.9	29	52.7	56	46.3
가해·피해형	19	28.8	10	18.2	29	24.0
의견형	20	30.3	16	29.1	36	29.8
합계	66(명)	100.0(%)	55(명)	100.0(%)	121(명)	100.1(%)

주: $\chi^2 = 2.33$, $df = 2$, n. s.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그들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로 오면서 기억 전수의 경험과 성별에 따른 문화적 경험이 달라짐으로써 성이 기억유형에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외에 기타 응답자의 직업 및 교육수준(중장년층), 4·3사건에 대한 관심도, 대화 빈도수, 전공(대학생), 출신마을, 가족 중 희생여부 등의 변수와 위의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간 마을 출신이나 가족 중 희생자가 있는 경우가 해안 마을 출신이나 희생자가 없는 경우보다 4·3 관련 이야기를 직접, 간접으로 더 듣거나 느낄 수가 있으므로 기억 재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 중 희생여부는 4·3 관련 뉴스 듣기 등 관심도와 연관이 있었다. 중장년층의 경우, 가족 중 희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4·3 관련 뉴스(신문보기, TV 시청)에 훨씬 더 관심을 표명했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하여 뉴스, 유적지 방문, 의례 참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관련 뉴스, 기념의례 참가, 유적지 방문, 문헌 읽기 등

4·3에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기억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았다.¹²⁾

V.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4·3 후체험 세대가 제주사회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간주되는 4·3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들의 역사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주민들은 50여 년 전의 사건을 원인과 결과의 축으로 설명하거나(원인·결과형), 구체적인 가해와 피해의 사실 또는 경험으로 묘사하거나(가해·피해형),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의견형) 등 그들만의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후체험 세대의 4·3은 그들의 세계관이나 문화 외에도 사건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어온 기억의 사회사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의 사회성은 세대, 성 등 사회집단에 따라 담론 방식이 나누어지는 데서 확인된다. 무엇보다 먼저 젊은 세대로 오면서 놀라울 정도로 4·3을 기억할 만한 과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대학생들의 일상의 삶에서 4·3의 영향이 멀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후기청년기나 초기성인기의 경험이 주민의 기억 재구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대학생에 비하여 가해·피해형(가해론, 희생론)으로, 대학생은 중장년층에 비하여 원인·결과형(원인분석형, 과정분석형)으로 과거를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중장년층은 그들의 초기성인기 동안 사회적으로 4·3 토론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제도적, 자발적 망각 행위에 의해 발달된 사적 기억이나 이중 기억 등을 발달시켜왔다. 반면 대학생들은 활발한 진상 규명운동의 분위기에서 그들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보다 4·3 시각이나 논쟁,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인을 분석해보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 결과는 중요시기 가설과 기억의 공개 여부와 기억 재형성에 관한 기존 가설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세대 외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 연구에서는 성으로 드러났다. 후체험 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해·피해형으로 접근하고, 남성은 원인·결과형으로 더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일상생활의 특정 경험담으로, 남성은 사건 전체의 원인이나 과정을 분석하

12) 예외적으로 중장년층의 경우에만 4·3 관련 TV 프로그램 시청과 기억유형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32$, $df=4$, $p<.05$).

는 방향으로 과거를 역사화하고 있다. 이는 성에 따른 제도적 장치와 성역할 사회화 과정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기억유형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4·3을 주로 공적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제주사회에서 성에 따른 일상의 차이를 그만큼 적게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의 세계관, 인식 구조, 회고 방식 등을 형성해가는 사회적인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에서 기억의 담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 이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변수들의 검토나, 검증상 보다 정밀한 표집이나 통계 기술의 응용 등도 요청된다. 또한 이 글의 한계인 설문지조사 방법을 넘어 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순사건 등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재구성 과정 등에도 이 조사 결과가 적용 가능한지, 그 유사성이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시도해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통사람들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기억 내용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니구에즈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서사들이 단지 주변적 이야기로 남겨지지 않고, 또 다른 형태의 역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199-231.
- 김영범.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민주주의와 인권』 3(2): 67-104.
- 김종민. 1999. “4·3이후 50년.” 역사문제연구회·역사학연구소·제주 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pp.338-424.
-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켜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 윤택림. 2001. “한국 근현대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 『사회와 역사』 59: 207-251.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1998. 『4·3은 말한다』. 전예원.
- 제주도문헌연구소. 1989. “4·3 설문조사 보고.” 『월간제주인』 5월호: 121-135.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 4·3사건 진

- 상조사보고서』.
- 제주 4·3연구소 편. 1989.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 제주 MBC TV. 1991-2001. 「4·3 증언 - 나는 말한다」. (다큐멘터리)
- 제주도 여성교육 문화센터. 2000. 『제주여성통계연보』.
-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2.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III - 신문기사자료집』.
- 최병길·권귀숙·강상덕·김현돈·한석지·박찬식. 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 연구』 15: 113-152.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 위원회 증언팀. 2001.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 Alonso, Ana Maria. 1988. “The Effects of Truth: Representations of the Past and the Imagining of Community.” *The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1): 33-57.
- Baumeister, Roy & Stephen Hastings. 1997. “Distortions of Collective Memory.” pp.277-294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rown, R & J. Kulik. 1977. “Flashbulb Memories.” *Cognition* 5: 733-799.
- Burke, Peter. 1989. “History as Social Memory.” pp.77-96 in Thomas Butler (ed.).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New York: Basil Blackwell.
- Connerton, Paul.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way, Martin. 1997. “The Inventory of Experience: Memory and Identity.” pp.21-46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Ely, Richard & Allyssa McCabe. 1996. “Gender Differences in Memories for Speech.” pp.17-30 in Selma Leydesdorff (ed.). *Gender and Mem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Fentress, James & Chris Wickham. 1992. *Social Mem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Gaskell, George & Daniel Wright. 1997. “Group Differences in Memory for a Political Event.” pp.175-190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Halbwachs, Maurice. 1980.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Hosking, Geoffrey. 1989. "Memory in a Totalitarian Society: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pp.115-130 in Thomas Butler (ed.).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New York: Basil Blackwell.
- Igartua, Juanjo & Dario Paez. 1997. "Art and Remembering Traumatic Collective Events: The Case of the Spanish Civil War." pp.79-102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Iniguez, Lupicinio, Jose Valencia & Felix Vazquez. 1997. "The Construction of Remembering and Forgetfulness: Memories and Histories of the Spanish Civil War." pp.237-252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eydesdorff, Selma, Luisa Passerini & Paul Thompson. 1996. "Introduction." pp.1-16 in Selma Leydesdorff (ed.). *Gender and Mem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rques, Jose, Dario Paez & Alexandra Serra. 1997. "Social Sharing, Emotional Climate, and the Trans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emories: The Portuguese Colonial War." pp.253-276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Paez, Dario, Nekane Basabe & Jose Gonzalez. 1997. "Social Process and Collective Memory: A Cross-Cultural Approach to Remembering Political Events." pp.147-174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Pennebaker, James & Becky Banasik. 1997. "On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ollective Memories: History as Social Psychology." pp.3-20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Popular Memory Group. 1982.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pp.205-252 in Richard Johnson, Gregor McLennan, Bill Schwarz & David

- Sutton (eds.). *Making Histories: Studies in History-writing and Politics*.
Hutchinson: University of Birmingham.
- Schman, Howard, Robert Belli & Katherine Bischooping. 1997. "The
Generational Basis of Historical Knowledge." pp.3-20 in James Pennebaker,
Dario Paez & Bernard Rime (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chuman, Howard & J. Scott.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59-381.

권귀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억에 관심을 갖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제주 4·3
의 사회적 기억,” “대량학살의 사회심리- 제주 4·3사건의 학살 과정” 등이 있다. E-mail:
ggsoog@hanmail.net

(2003. 9. 23 접수; 2004. 1. 31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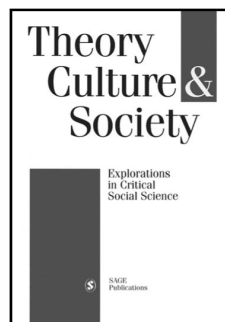
Free online sample now available on our website!

Theory, Culture & Society

Explorations in Critical Social Science

Editor **Mike Featherstone** Nottingham Trent University, UK

"Theory, Culture & Society has played an exemplary and indispensable role in opening up new vistas on interdisciplinary knowledge. The journal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cultural studies in its many manifestations, and academics and intellectuals the world over are deeply indebted to the role it plays in expanding our horizons" - Homi K Bhabha



Launched in 1982 to cater for the resurgence of interest in culture within contemporary social science, **Theory, Culture & Society** provides a forum for articles which theo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society.

Theory, Culture & Society is at the cutting edge of recent developments in social and cultural theory. The journal has helped to break down some of the disciplinary barriers between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by opening up a wide range of new questions in cultural theory.

Theory, Culture & Society builds upon the heritage of the classic founders of social theory and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is tradition has been reshaped by a new generation of theorists. The journal regularly features papers by and about the work of a wide range of leading social and cultural theorists such as:

- Adorno • Baudrillard • Beck • Bell • Bourdieu • Butler • Deleuze • Douglas
- Elias • Foucault • Gadamer • Goffman • Giddens • Habermas • Horkheimer
- Luhmann • Lyotard • Simmel • Touraine • Virilio • Weber

Visit the TCS Centre website: <http://tcs.ntu.ac.uk/>

Six times a year: February, April, June, August, October, December
ISSN: 0263-2764

SAGE Publications
6 Bonhill Street, London EC2A 4PU

www.sagepub.co.uk

Subscription Hotline +44 (0)20 7330 1266 Email subscription@sagepub.co.uk